

HIV/AIDS의 만성질환화 이후의 문학 서사 변화 양상 연구*

오은교**

1. '페이션트 제로'의 괴담 내러티브 너머- HIV/AIDS의 만성질환화 시대의 문학
2. 필연에서 우연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공포에서 외로움으로
3. 요양병원의 시장화와 애도의 자격
4. 안전하지 않은 섹스를 할 권리와 설레는 감염
5. 나가며

국문초록

본 논문은 제약 기술의 발달을 통해 만성질환화된 HIV/AIDS가 한국 문학장 안에서 어떤 서사적 변화 양상을 가져왔는지를 분석한다. 사병(死病)으로서의 의미가 약화되며 HIV/AIDS 서사는 감염인의 심리적인 고통에 치중하기 보다 감염인으로서 학교, 군대, 회사, 요양병원, 장례 등 다양한 생애주기를 다루게 되었으며 특히나 '돌봄 노동'과 관련한 전사회적 문제를 제기한다. 누가 누구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관한 물음은 돌봄 부채가 막대하게 불어나는 고령화 시대 한국 사회의 초상 그 자체다.

2010년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김병운, 박상영, 박선우, 유성원, 이현석, 최은영 등의 동시대의 많은 작가들이 HIV 감염인의 재현을 새롭게 탐구하

* 이 논문은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 (NRF-2024S1A5B5A17038017). 귀중한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분들께 감사린다.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박사과정

기 시작했으며 이는 기술의 진보와 인식의 발전에 따른 결과이다. 이들의 소설에서는 노동, 연애, 가족 등의 '정상성' 규범 등이 의문시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HIV 감염인의 노동권, 요양병원 시장의 자본화와 시설의 문제가 증점적으로 가시화되며 이는 장애학의 인식론과 결합된다.

본고는 문학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에서 HIV/AIDS에 대한 시적, 정치적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페미니즘 대중화와 퀴어정치의 진보에 따른 대중서사의 발전을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HIV/AIDS, 한국 문학, 장애학, 돌봄 노동)

1. '페이션트 제로'의 괴담 내러티브 너머- HIV/AIDS의 만성질환화 시대의 문학

신약 처방을 통해 HIV/AIDS는 '사병 死病'에서 '만성질환'으로 그 의미가 전환되었다. HIV 치료제는 1980년대에 처음 파악된 이후 1990년대 후반 광범위하게 보급되기 시작했다. 질병관리청의 에이즈관리과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국내에서는 2000년대 이후 약물이 처음 보급된 이후 현재 약 30여 가지의 치료제가 유통되고 있다. 유엔 에이즈기구(UNAIDS)에서는 HIV/AIDS 감염인이 복약을 지속한다면 성 접촉을 통한 감염력이 없다고 선언하였으며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해당 선언문을 채택하고 있다. 걸리면 죽는 치명적인 질병에서 생애 내내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으로 그 의미가 대대적으로 전환된 시점을 배경으로, 이 논문은 HIV와 감염인에 대한 한국 문학 작품 속 재현 변화를 살펴보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한다.

한국에서 HIV/AIDS를 키워드로 한 문학 연구는 미국, 프랑스, 일본 소설에 대한 분석을 제외한 것들이 주를 이루며 국내 문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무하다시피 한다. 1990년 출간된 김성종의 <불타는 여인>, 1993년 출간된 김경민의 <겨울 허수아비도 사는 연습이 필요하다>, 2004년에 출판된 김수진의 자전 소설 <하얀 노을> 등이 HIV/AIDS를 중심 소재로 한 문학작품이다.

<불타는 여인>에서 HIV/AIDS는 서사의 추리 전개 내에서 밝혀지는 비밀스런 소재로, 이때 HIV/AIDS는 사회를 공포에 사로잡는 타자적 물질이다. 외국인과 난잡하게 교제하며 마약 파티를 벌인 타락한 여성들이 그 주변인들을 줄줄이 감염시켜 결국 치정 연쇄 살인사건으로 비화되는 사건을 그린 이 작품은 여성의 성적 활동을 죄악시하고 경고하는 전형적인 90년대 문학의 경향을 반영하는데, 기술 이전 등 사업상의 국경 개방을 통해 시작된 성적 방종이 가정과 국가에 해악을 끼친다는 식의 플롯은 이 소설을 비롯하여 당시 HIV/AIDS 대중 서사의 주를 이뤘다.¹⁾

김경민의 <겨울 허수아비도 사는 일에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동성애자로서 살아온 삶에 대한 자기 이해의 시도인 자서전인 동시에 문학가를 꿈꾸었던 저자의 습작 노트로서 산문과 운문의 형식을 거칠게 넘나든다. 죽음에 예감하는 자로서의 회한의 음조 안에서 화자는 자신과 게이 커뮤니티에 대한 감정을 애뜻하게 드러낸다.²⁾

1) 1990년대 대중 영상 매체의 HIV/AIDS 재현을 분석한 문아영은 <빨>을 비롯하여 당시 에이즈를 소재로 한 영화 <팁주는 여자>, <눈감으면 보이는 세상> 등에서 외국인과의 교제한 미혼 여성이 주요 인물로 나오며 감염에 대한 복수를 위해 남성과의 난잡한 성관계가 부각된다고 분석한다. “이는 당시 국가가 기지춘 여성들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여겨지는 여성을 ‘에이즈 보균자’로 상정하고 강제 검진 정책을 시행했던 역사와 맞물리는 한편, 1990년대 미혼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문제시되었던 시대적 맥락과도 연결된다.” 문아영, 「국가를 위생화하기?: HIV/AIDS 감염인의 재현과 그에 따른 낙인화」, 『현대영화연구』 제57호, 한양대학교 현대영화연구소, 2026, 113쪽.

한편 결혼, 출산, 육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하얀 노을〉은 HIV/AIDS라는 질환을 비극적으로 맞닥드리게 된 평범한 주부의 극복 서사다. 아이의 발병으로 가족 전체의 보균사실을 알게 된 현숙한 아내 화자는 자살 충동을 이겨내고 분열된 가족을 추스린 후 유능한 의사의 조력을 받아 수직 감염이 일어나지 않은 건강한 둘째 아이를 출산한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사의 말을 빌려 HIV/AIDS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가정의 재생산과 행복을 염원하는 이 글은 자조적, 계몽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겨울 허수아비도 사는 일에는 연습이 필요하다〉와 〈하얀 노을〉은 모두 허구와 비허구를 넘나들며 저자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시민단체의 권유와 격려를 통해 집필되었으며 책 뒤편에 HIV/AIDS에 대한 정보와 현황, 지원처 등을 공유하는 안내에 별도의 장이 파라텍스트로서 별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형화된 문학 서적과는 다른 편집 형태를 보여준다.³⁾

수잔 손택의 『에이즈와 그 은유』는 ‘침략’과 ‘오염’ 등 군사적이고 피아를 구분하는 비유법이 정형화된 낙인과 도덕적 속죄를 유발한다고 지적하

2) 저자 김정민은 국내 최초의 성소수자인권단체로 알려진 ‘초동회’의 창단멤버이자 이후 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의 부회장을 역임한 오준수로 알려져있다. 오준수는 1998년 사망하였으며 2000년 친구사이는 그의 유고를 모아 〈오준수를 추모함〉이라는 유고집을 자비 출판했으며故오준수의 유고가 포함된 미술가 이강승 작가의 작품은 2019년 국립현대미술관을 통해 영구 소장되었다. 오준수와 그의 유작에 대한 정보는 모두 김대현, 『세상과 은둔 사이』, 오월의 봄, 2021, 82쪽.

3) 1990년-2000년대는 에이즈 위기 이후 동성애자운동의 글로벌화와 국내의 성소수자 인권단체의 설립 시기와 맞물리며 이 시기에 출간된 김정민, 김수진의 작품 등은 한국 성소수자운동의 제도화 과정의 산물이기도 하다. 전원근은 “최초의 동성애자 인권단체인 ‘초동회’와 외국인동성애자 집단을 주요 사업대상으로 삼고 있는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의 전신인 ‘한국에이즈예방운동본부’가 같은 해인 1993년에 결성된 것도 우연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산발적으로 존재했던 국내 성소수자 단체의 체계화와 국가적 HIV/AIDS 예방 사업이 비슷한 시기에 시작되었다고 밝힌다. 전원근, 「1980년대 『선데이서울』에 나타난 동성에 담론과 남성 동성애자들의 경험」, 『젠더와 문화』 제8권 2호,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2015, 163쪽.

며 HIV/AIDS 담론을 선도했다.⁴⁾ 남웅은 보균자들에 대한 차별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재현된 캠페인이 낙인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을지언정 “에이즈를 동성애, 성매매, 마약 주사 사용집단으로 집단화하는 패턴을 건드리지 못한(않은?) 채 이른바 ‘착한 에이즈’와 ‘나쁜 에이즈’를 어렵지 않게 분리해”⁵⁾ 내는 배제의 수사학이 사용했다고 말한다. 차별 금지와 인정을 위해 HIV/AIDS 보균자들의 규범 시민적 면모를 부각시키는 전략이 사용되거나 해당 담론을 둘러싼 언어에서 예방만이 강조되는 패턴은 보균자들에 대한 타자화의 방식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 문학의 에이즈 재현을 간략히 개괄한 박형서는 죄악과 몰락의 은유가 아닌 인간 삶의 일상적 조건으로서 HIV/AIDS를 “천벌이라는 미신으로부터 벗어나 바이러스의 존재를 직시한다면,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역학조사 수준 이상으로 환자의 감염 사연에 관심을 집중하고 그 병에 걸려 마땅한 사회적 약점을 발굴해 사회적 부담을 떠난기는 희생양 의식은 사라질 수 밖에 없다”⁶⁾고 말한다.

전염병은 특히나 ‘페이션트 제로’, 즉 초발 환자를 특정해내는 추리 구조에 의탁한다. 서보경은 에이즈 확산 초기 최초의 단 한사람을 특정해내는 ‘페이션트 제로’라는 픽션이 발명되었으며 “신종 감염병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 가장 충실하게 정보를 제공한 응답자가 연구 결과의 출판과 확산 과정에서 일어난 왜곡과 확대 해석에 의해 최초 전파자로 둔갑”⁷⁾되었음을 말한다. 또한 ‘페이션트 제로’ 서사의 한 변주인 ‘상처 입은 사냥꾼 가설’은 아프리카 우림에서 침팬지로부터 상처를 입은 현지인이 최초의 감염인이

4) 수잔 손택, 『은유로서의 질병』, 이재원 역, 이후, 2002, 142-143쪽.

5) 남웅, 「에이즈 표현하기, 에이즈 표현을 위한 주춧돌 놓기」, 『감염병과 인문학』, 강, 2014, 242쪽.

6) 박형서, 「한국 문학에 나타난 에이즈」, 『감염병과 인문학』, 강, 2014, 163쪽.

7) 서보경, 『휘말린 날들』, 반비, 2023, 64쪽.

라는 가설로 20세기 초 기술의 발달로 가능해진 혈액 유통의 정치경제학을 외면한 채 아프리카 대륙 및 아시아의 일부 지역을 타자화하는 식민주의적 발상에 기반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서보경은 감염인은 죄를 지은 첫 번째 사람이 아니라 우연한 계기로 ‘앞줄에 서게 된 사람들’이라 명명하며 감염을 가함과 당함의 일방향 전파가 아닌 ‘휘말림’이라는 상태로 표현할 것을 제시한바 있다.

1980년대-1990년대 국내 신문기사와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HIV/AIDS 담론을 살피는 박차민정은 에이즈라는 질병이 조직되기 위해 통일성 있는 내러티브가 요구가 되었다는 국내외적 사실을 짚으며 게이 액티비즘이 사회적 가시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남성 동성애는 성매매와 완전히 교환가능한 용어로서 인식”⁸⁾되었던 한국 사회에서 HIV/AIDS가 ‘괴담’의 형식으로, 대중의 공포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유통되었음을 지적한다. “AIDS를 둘러싼 괴담은 성산업이 일상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시대에 “문란한 성생활의”의 상징으로 출현한 이 새로운 질병에 대한 강박적 공포를 대변”⁹⁾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성산업이 확산되었던 1980년대 말 감염자가 보복심리로 현혈을 한 다거나 유흥업소에 접대부로 취직한다는 식의 괴담 등은 공신력 있는 HIV/AIDS 서사가 되었고, 감염인들의 고백서사가 앞다투어 보도되기 시작한 1990년대 중후반에 이르면 감염이 의심되는 이들의 연이은 자살과 친족 살해가 연이어 보도되었다.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초 잡지 〈선데이 서울〉 속 동성애자 재현을 살핀 전원근은 “아무런 실증적인 국내자료도 없던 1990년대 이전부터 이미 동성애가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과 함께 AIDS의 주요 매개원으로 지목”¹⁰⁾되었으며 이 때 자국민은 외국의 변태적인 성문화로부터 보호받아

8) 박차민정, 「AIDS 패닉 혹은 괴담의 정치」, 『말과활』 제12권, 일곱번째썰, 2016, 40쪽.

9) 위의 글, 42쪽.

야 마땅한 순수한 민족적 신체로 표상되었음을 말한다.

보건사회학의 관점에서 한국의 HIV/AIDS 담론의 흐름을 살핀 조병희는 한국에서 에이즈가 역학전문가들에 의해 주한미군과 이를 접대하는 매춘부를 통해 매개된다는 공식으로 주로 이해되었으며 이는 서울올림픽과 해외여행자유화를 기점으로 만연해진 외국인 공포의 한 양상으로서 ‘괴질’의 이미지를 형성한다고 말한다. “한국에서는 ‘외국’과 ‘질병(성병)’에 대한 공포로서 에이즈 공포와 낙인이 구성되었다. (...) 그나마 에이즈 발생 초창기에 사회운동권 그룹들이 조직적으로 에이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은 에이즈가 ‘민족과 외세’라는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¹¹⁾

위와 같은 HIV/AIDS에 관한 주류 서사들을 종합해보자면 앞서 소개한 문학 작품들은 당대 HIV/AIDS에 대한 서사의 대표적인 유형들이기도 하다. ‘페이션트 제로’를 통한 질병의 구성, 괴담을 통한 공포의 조장, 외국인·동성애자·성매매여성이라는 인구군 추출 그리고 고백을 통한 죄의 확정과 갱생 의지의 표명 등은 HIV/AIDS 만성질환화 시대 이전 문학 서사의 주요 플롯으로 해당 질병에 대한 미적 의미 구성에 영향을 받았고, 영향을 끼쳤다. 발병 인지와 동시에 곧장 죽음과 연결되는 이 작품들은 주로 비극의 소재로서 HIV/AIDS를 채택하였고, 발병의 순간에 대한 포착에 깊은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행실의 문제 등을 부각한다는 특징들이 있다. 자전적 글쓰기가 아니라면 자극적인 소재주의로서 HIV/AIDS 문학이 주를 이루는 건 당대 HIV/AIDS에 대한 문학과 대중독자의 편견과 무지를 반영하고, 치료제가 마땅치 않은 당대의 시대적 조건 속에서 죽음의 공포를 유발하는 ‘에이즈 패닉’의 정서를 자극한다. 문란한 성생활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죄인, 불운한 상황에 휘말린 선량한 소시민 등 HIV/AIDS가 재현되

10) 전원근, 앞의 글, 151쪽.

11) 조병희, 『섹슈얼리티와 위험 연구』, 나남, 2008, 171쪽.

는 양상은 이처럼 양극단을 오가며 질병의 필연성을 강화한다.

제약 기술의 발달로 질병의 의미가 변화하며 발생한 새로운 문학적 특징들 중 본 논문에서 집중적으로 탐구하고자 하는 논의들은 다음과 같다. HIV/AIDS가 만성질환으로 분류되며 ‘질병-죽음’을 말하는 서사 대신 ‘질병-삶’을 말하는 서사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관리 및 통제를 받는 바이러스의 보균자는 학교, 군대, 회사, 병원 등 생애주기에서 경험하는 광범위한 제도적 문제를 드러낸다. 이에 문학 작품은 당사자와 주변인의 심리만이 아닌 돌봄 노동, 요양병원을 배경으로 한 노무, 보건 환경 등을 주제로 삼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질병에 대한 시민의식의 변화를 명백히 보여주는 동시에 신자유주의시대의 제약 구매자이자 일상적 돌봄을 요하는 만성 질환자로 살아가는 일의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을 제도화한 시설화를 문제 삼는다. 이러한 서사의 변화는 비판 학문으로서의 퀴어 인식론의 가능성과 한계를 한꺼번에 보여준다.

2. 필연에서 우연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공포에서 외로움으로

2010년대 중후반 이후 한국 문학장은 HIV/AIDS의 규범적 재현 방식에 반기를 드는 작품들이 대거 등장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2018년부터 발표가 시작되어 2019년 연작소설로 출간된 박상영의 〈대도시의 사랑법〉은 한국 퀴어 소설의 문법을 갱신했다는 평을 받으며 많은 주목을 받아 국내외 문학상을 석권하며 다양한 미디어믹스를 양산했다.¹²⁾ 이 작품은

12) 원작의 주요 플롯들이 그대로 반영되었지만, 주인공의 HIV/AIDS 감염 설정은 모든 미디어믹스에서 삭제되었다. 그러나 TVING을 통해 공개된 드라마 〈대도시의 사랑법〉에 대해 방영 예고 직전 보수 기독교단체 등에 의해 해당 드라마의 편성 철회를 촉

HIV 보균자인 화자 영이 비타민을 챙겨먹듯 꾸준히 치료약을 복용하며 군 복무, 자취, 학업, 연애, 취업, 승진 등과 같은 대학생과 직장인의 일상을 유쾌한 필치로 보여준다. 전염과정을 역학조사하듯 소상히 밝히지 않으며, 즉 감염의 필연성보다 우연성이 강조되며 바이러스는 화자가 좋아하는 팝스타의 이름으로 명명된다. 군 휴가 중 감염되어 의병제대 후 해외 여행 중 예방 약물 용법을 하거나 동성연인을 위장시켜 취업의 문턱을 넘는 지점 등을 보여주는 이 소설은 국내 HIV/AIDS 문학의 새로운 기틀과 좌표를 마련한 기념비적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대도시의 사랑법〉의 화자 영은 2010년, 복무 중 백일 휴가를 나와 사귀던 6개월이 된 공무원 연인 K와 막 발매된 카일리 미노그의 신보를 들으며 콘돔 없이 섹스를 한다. 이박삼일의 만남을 끝으로 부대로 복귀지만 “보름 뒤 고열을 동반한 열꽃”¹³⁾이 몸에 피어오른다. 영은 국군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고 HIV 감염 판정을 받아 즉시 사회로 반환된다. 감염인의 신체는 징병제를 통해 성별을 분할하는 국방 안보의 의무를 지기에는 미달하고 위험한 존재다. 제대 후 복학과 아르바이트를 하던 화자는 클럽에서 가벼운 몸싸움 후 입술에서 피가 나는데, 그 상황에서 물을 건네준 한 남자에게 키스를 하게 되고 그렇게 화자의 “피 맛을 본 규호”¹⁴⁾와 연인 관계로 발전한다. “규호는 조용히 빼고 해도 돼?라고 반말로 물었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규호가 쑥스러운 듯 말했다./ -미안해요. 끼고 하면 자꾸 죽어서./-(그거 발기부전 환자들의 흔한 변명이라던데.) 괜찮아요.”¹⁵⁾

구하는 의견에 부딪혔다. 송경호, 〈CJ·티빙, 동성애 미화 〈대도시의 사랑법〉 방영 철회해야〉, 『크리스천투데이』, 2024.10.14.,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64358>. (접속일: 2026.6.10.)

13) 박상영, 『대도시의 사랑법』, 창비, 192쪽.

14) 위의 책, 191쪽.

15) 위의 책, 212쪽.

군 휴가 중 감염이 되고, 혈액이 묻은 키스를 하고, 콘돔을 사용한 성공적이지 않은 섹스는 군대, 감염, 안전한 성관계에 관한 HIV에 관한 동시대의 담론을 거른다. 전작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를 통해 군 내 동성 연애 문제를 다룬 바 있는 작가는 다시 한 번 ‘군대’라는 장소를 국가적 안보를 담당하는 불가침의 신성 장소에서 동성애혐오가 만연하며 개인의 삶이 지연되고 유예되는 동시에 뜻하지 않은 인간관계들이 발전하는 일상적 시공간으로 키치하게 전유한다.¹⁶⁾

한국 군대 속 동성애의 문제를 연구한 정성조에 따르면 2000년대는 병사가 동성 군인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은 뒤 자살한 사건과 동성애자 병사가 자신의 성정체성을 군대에서 밝혔다가 강제적인 AIDS 검사를 받는 등의 인권 침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군내 성소수자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이 적극적으로 궁구되던 시기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국방부는 동성애자를 조기에 식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환치료 지원을 포함하여 ‘병영 내 동성애자 병사 관리 지침’ 등을 그 응답으로 내놓았다. “군대 내 성폭력의 잠재적 가해자인 동성애자 병사를 미리 색출할 수 있으면 성범죄를 예방”¹⁷⁾ 수 있다는 결론은 성폭력이 성별정체성에 기인한다는 인

16) 2017년 발표된 박상영의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는 흥행에 실패한 영화감독 화자가 이라크에서의 군 복무 중에 만난 전우이자 옛 짝사랑 상대였던 친구와 비극적 동성애를 예술적 소재로 비판 없이 사용하여 흥행에 성공한 동료 영화 감독을 만나는 사건을 다룬다. 이라크 침공, 군사동맹국가의 파병이라는 세계의 정치 지형도의 한복판에서 험지 파병 지원으로 돈을 모으려는 가난한 청년들은 주둔지의 한복판에서 전우와 사랑에 빠지고, 예술가로서의 장래를 고민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성 정체성에 불안해하며 섹스를 하고 밀주를 마신다. 폭격 등의 전쟁 비극과 예술가로서의 답없는 미래, 비규범적 성정체성의 대한 불안 등이 나란히 제시됨으로써 ‘미래 없음’이라는 실패의 예감이 소설의 중심 정조를 형성하며 이는 아무리 애를 써도 ‘정상’에서 탈락하고야 마는 박상영 소설의 전반에서 발견되는 기조다. 박상영,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문학동네, 2018.

17) 정성조, 「한국 군대 내 동성애 ‘문제’의 ‘탄생’: ‘군형법 상 추행죄’의 시차에 대한 역사적 접근」,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2018, 460쪽.

식을 전제로 한다. 동성애자를 관심사병으로 관리 대상화하는 사고방식은 이후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로 시행된 대대적 동성애자 군인 색출 사건의 전제가 된다. 현행법상 감염인은 현역병 복무가 면제되지만, 신체 검사 단계에서 감염사실이 밝혀지지 않거나 추가 발병되지 않을 경우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의무 복무 기간을 채울 수도 있으니, 혈액검사 후 군의 관으로부터 “너 바텀이나 탑이나”를 말을 듣고 “급속도로, 정말이지 일사 천리로”¹⁸⁾ 제대한 <대도시의 사랑법>의 영은 동성애자 색출과 감염인 방출에 적극적인 당국의 경직된 군문화를 그 시대 배경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대 이후 영은 예방약을 먹으며 건강을 관리하지만, 가족을 비롯하여 가장 가까운 친구 그룹에게도 자신의 감염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고, 규호와 의 연인으로서의 발전 단계 직전 속내를 털어놓는다. 영에게 HIV는 혈관을 공유하는 ‘가족’이자, 평생 함께 할 또다른 ‘자기 자신’이다.

카일리와 맞닥뜨린 후 처음 두어달은 정신이 없었어. 의병제대를 하고 방 안에 앉아 있는데, 이게 내 일이 맞나 싶고, 애가 내 것이 맞나 싶고. 근데 뭐, 별거 있나. 약이 있으니. 죽을 때까지 아침마다 비타민 한알씩 먹는다고 생각하기로 했어. 섹스야 콘돔 끼고 하면 그만인 거고. 다들 교양 차원에서 그 정도는 하고 살잖아? 남들 2년 동안 군대에서 썩을 걸 6개월 만에 끝냈으니까 인생 편했겠다 생각하자, 그러고 말았어. 엄마랑 티아라 애들한테는 허리 디스크 때문에 나오게 됐다고 했어. 자세도 안 좋고, 진짜 허리디스크가 있긴 했으니까. 개중 멀쩡히 정신 박힌 애들은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물어보긴 하더라. /-뭐야. 너 똥 짖어 먹은 거 아냐? /-앗, 들켰네. /다들 와르르 웃고 치웠지 뭐. 애들이랑 술 마실 때, 길에 보균자라고 소문난 애가 지나가면 개그 담당인 은정이가 어김없이 “야, 다들 잔 가려”

18) 박상영, 앞의 책, 193쪽.

말했고, 모두 웃기 바빴어. 나도 눈물이 나게 실컷 웃다가 아 맞다, 내 몸에도 그게 있구나, 생각이 들면 그제야 등골이 서늘해지고 뻗뻗해지고 그랬지. 그치면 평소에는 아무 생각도 뭣도 없어.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나에겐 카일리가 있어. 이진 5년도 넘게 나와 함께 살아온 가족이나 다름없고, 어쩌면 가족보다도 더하지. 같은 혈관을 공유하고 같은 양분을 먹고 같은 숨을 쉬고. 그러니까 이진 나야. 또 다른 나. 앞으로도 나일거고 죽을 때까지 나일테니까. 그리고 오직 나만의 것이어야 하고..... 나랑 만나고 싶으면 말이야, 그걸 알아둬야 해. 내가 나이며 동시에 카일리라는 사실을 말아야. 이 사실을 털어놓는 건 네가 처음이야. 그렇다고 부담 갖지는 마. 철석같이 남자만 믿다가 이 꼴 난 내가 할 소리는 아니지만 이상하게 네가 믿음이 가서 하는 말이니까. 만약에 이런 내가 부담스러우면, 실은 그게 더 자연스러운 일이고 자연의 섭리고, 따라서 그냥 가도 돼. 대신 조용히만 있어줘. 내가 지금처럼만 살 수 있게.¹⁹⁾

노출 전 예방 용법을 뜻하는 프렙(Pre-Exposure Prophylaxis 약어로 PrEP/프렙)은 2018년부터 국내에 공식허가되었지만, 보험 지급 요건이 까다로우며 비급여 처방을 할 시 높은 비용이 청구되어 실효성 문제 등이 제기되었고 2025년 이후로는 질병관리청이 의향자에게 약제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의 역사에서 ‘혁명’으로 불리는 프렙은 HIV/AIDS 보균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파트너를 비롯하여 공동체 전체가 책임을 나눠갖는다는 의미에서 감염 당사자만의 고립된 의무를 해방시켜주는 측면이 있다. 감염인 본인만이 전염 질환의 모든 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면역에 대한 공동체주의가 환기되며 데이팅앱 프로필에 프렙이나 U=U(미검출 전파불가) 등을 표기하는 관례가 생기는 등 의사소통 방식의 전반적인 변화를 야기했다. 물론 정보와 소득, 취향의

19) 위의 책, 224-226쪽.

격차가 있기에 프렐의 시행 여부 자체가 규율이 될 순 없다. 프렐 등 통해 집단면역을 강화하는 것만이 아니라 프렐을 해도, 하지 않아도 HIV 감염 사실로 인해 삶이 끝장날 것이라는 불안이 강제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박상영의 소설은 이 낮은 불안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도시의 사랑법〉 연작 중 2018년에 발표된 〈늦은 우기의 바캉스〉의 연인은 태국 여행 중 복제약과 발기부전 치료제를 구매하고, 온디맨드로 성관계를 가진다. “카일리에게도 휴가를 주는 거야.”²⁰⁾ 두 사람은 약을 나누어 먹고 사귀지 2년만에 콘돔 없는 섹스를 한다. 짧은 휴가에서 돌아온 연인은 취업난과 바쁜 회사일로 성적 활동이 현저히 줄어든다. 프렐이 그들이 연인이 되는 과정에 있어 중요한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프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들이 상재하는 셈인데, 그것은 단지 콘돔 사용에 대한 호오뿐만이 아니라 HIV 감염인 동성 커플로서 감내해야 하는 일상적 불안, 격무로 인한 경험과 감정의 소진, 미래에 대한 전망 부재 등과 총체적으로 관련된다.

〈대도시의 사랑법〉 연작에서 영의 사랑과 노동 능력이 부정되며 부서지는 사건이 기업의 해외 진출 사업 위한 ‘건강검진’이라는 사실은 주인공이 맞닥드린 좌절의 원인이 노동자 정체성을 강제하면서도 특정 노동자를 거부하는 신자유주의의 이중적 시스템 때문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다. 자본이 국경을 뛰어넘어 끝없이 제물을 부풀리는 동안, 노동자는 더욱더 작은 게토에 갇힌다. HIV 감염인으로서 해외 근무를 지원할 수 없음이 밝혀질 때, 스펙만 맞추면 HIV/AIDS 보균이라는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가뿐히 좌절되고, 주인공으로 하여금 연인을 향한 애정 표현을 끝끝내 망설이게 만든다. 영은 보균자의 파트너로서 생기

20) 위의 책, 286쪽.

는 삶의 제약을 모두 감당해달라고 선뜻 요구할 수 없다. 특히나 그의 연인 규호는 간호조무사로 원칙적으로 법적 제약을 받진 않는다해도 감염성 질환에 대한 민감 직업군이다.²¹⁾ 영은 규호를 떠나보내며 차갑게 단념한다. “카일리. 이것은 온전히 내 몫이니까.”²²⁾ 온전히 그의 몫이 아닌 약물이 존재하는 기술이 발전되어 왔지만, 현실은 더디다. HIV 보균자로서 그는 이제 당장 죽진 않지만, 험난하고 외로운 긴 삶을 살아가야 한다.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다 감염사실을 알게 된 경우는 최은영의 <상우>에서도 마찬가지다. “팀장이 나를 불러. 검사 결과를 보여주면서. 별말 하지는 않았지만 그날로 짐 싸서 나왔어.”²³⁾ 회사를 나온 그는 실직의 사유를 밝히지 못한 채 가족과 멀어진다. 뒤늦게 남동생의 감염 사실을 알게 된 누나가 자기 안의 위선과 혐오를 깨닫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이 소설은 중산층적 가족주의나 남매의 엄마가 속한 대안적 공동체²⁴⁾ 또한 HIV/AIDS에 대한 무지와 동성애규범성²⁵⁾ 기반으로 성립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21) 현행법에 따르면 HIV 감염인이 종사할 수 없는 명시된 직업군을 제외하고, 법률적으로 감염인으로서의 직업 선택의 자유는 제한하는 법은 없다. 하지만 치료제의 발달에 따라 종사 불가능한 명시된 직업군 또한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HIV 감염 간호사와 119구급대원에 대한 해고 건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가 있으며 일부 국가에선 직업군인으로서 복무 또한 가능하다. 정보는 다음의 아카이브. HIV/AIDS 정보사이트: 아카이브, <https://hivaidsinfo.org>. (접속일: 2026.5.9.)

22) 박상영, 앞의 책, 236쪽.

23) 최은영, <상우>, 『모르그 디오라마 - 2019년 제64회 현대문학상 수상소설집』, 현대문학, 2018, 184쪽.

24) 자본주의와 가족의 사사화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전통적 가족 형태의 강제가 ‘사회적인 것’을 방해한다는 가족사회학 연구는 미셸 바렛·메리 맥킨토시, 『반사회적 가족』, 김혜경·배은경 역, 나람북스, 2019. <상우>의 엄마는 암환자로서 돌봄과 모성 등의 기능을 핵가족화하지 않은 진보적인 대안 공동체에 거주하지만, 자녀의 학벌, 직장, 혼인 여부 등의 세속적 재생산 규범을 답습하는 방식으로 우정을 쌓으며 엄마는 딸의 이혼 사실을 비밀에 부친다.

25) 리사 두건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부상한 보수적 쿼어 운동의 흐름을 ‘새로운 호모규범성(new homonormativity)’이라 일컫는다. “이것은 지배적인 이성애규범의 전제 및

위와 같은 이직 제한과 실직 서사는 HIV/AIDS 소재가 질병과 낙인의 문제를 다루는 도덕적 문제임을 넘어 노동 가능성과 그 조건에 대한 물음으로 나아가는 노동문학의 성격을 보인다. 감염을 근거로 한 부당해고가 불법이라 해도 감염 사실을 밝히는 것조차 녹록치 않은 현실에서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말할 순 없을 것이다. 감염인임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을 요구 받지 않는 일자리를 전전해야 하고, 대개 그 자리는 비정규직이거나 사업주가 고용인에 대한 법적의무를 소홀히하는 곳이다. 일을 해야 질병을 관리할 수 있지만 병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는 역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그렇게 빈곤의 순환이 누적되며 구조적 건강 불평등이 양산된다.²⁶⁾ 노동 문학으로 HIV/AIDS 서사는 이처럼 차별 자체가 상품화된 세계에서 공평하게 잘 먹고 잘살아갈 권리의 획득만이 아니라 근로가능성과 불가능성이 노동 지위, 특정 직군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펼쳐진다는 사실을 통해 재현되고 있다.

3. 요양병원의 시장화와 애도의 자격

약칭 ‘코로나19’로 불리는 전세계적인 팬데믹이 동시대의 HIV/AIDS 서사의 증가를 가져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2021년에 발표된 박선우의

제도와 경합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조직적 결집으로부터 해제된 게이 구성원의 가능성과 가정생활 및 소비에 입각한 사사화되고 탈정치화된 게이 문화를 약속함으로써 이성애규범성을 고수하고 지지하는 정치다.” 리사 두건, 『평등의 몰락』, 한우리·홍보람 역, 현실문화, 2017. 123쪽.

- 26) 김정숙은 HIV 감염인의 많은 수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실을 밝히며 이 질병이 생애 내내 누적되어온 빈곤의 순환과 연관되어 있다는 있다는 점을 말한다. 김정숙, 「에이즈 감염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사는 이유」, 『월간 복지동향』 제178호,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13, 43-47쪽.

〈우리 시대의 사랑〉에 등장하는 HIV 감염인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앞에 선 사람들을 향한 불쾌한 시선들을 가리키며 “저런 반응은 꼭 HIV 검사 때 같”²⁷⁾다고 말하고, 화자는 바이러스를 나눠가짐으로써 남자친구와 한몸처럼 결속되고 싶다는 열망을 느낀다. 코로나19로 인한 한국의 첫사망자가 20년 이상 장기 입원해 있던 정신질환자였다는 사실은 환자를 사회와 철저히 격리해온 ‘시설 사회’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내주는 계기가 되었다.²⁸⁾ 특히나 2020년 4월 말, 이태원발 집단 감염이 알려지자 퀴어 혐오가 폭발한 사태는 전염병의 확산과 방역, 격리의 상황에서 특수하게 더 위험해지는 소수자들의 삶을 가시화시켰고, 이는 시설과 돌봄 노동의 문제의식으로 확산되어 갔다. HIV/AIDS에 감염된 후에도 관리를 통한 건강 유지가 가능해지며 소셜 속 등장인물들이 노화를 겪고, 만성질환자로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된 후 당사자와 그 관계인만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보살피는 노동자들이 등장한다는 사실은 초저출산과 고령화 시대, 사회적 돌봄 부채가 막대하게 불어나고 있는 동시대 한국 사회의 초상 그 자체다.

김병운의 「세월은 우리에게 어울려」의 장희는 스스로 “예비감염인”²⁹⁾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커뮤니티의 질병으로서 HIV/AIDS는 개인에게 떨어지는 천벌이 아닌 언제나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확률적 잠재성으로 의미화된다. 장희는 “집안에 어렸을 때부터 여성스러운 행동거지로 천덕

27) 박선우, 『햇빛 기다리기』, 문학동네, 2022, 122쪽.

28) ‘시설 사회’는 고병권의 개념으로 장애여성공감 등은 이 명명을 채택하여 한국사회의 다양한 시설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탈시설운동의 쟁점을 널리 소개하였다. 나영정·김순남·김호수·변미혜·오진방·강진경·김현철·김윤영·전근배·고은지·김연주·권미란·노다혜·김은정·정다운·조현수·김지혜·여름·한날·진은선·조미경, 『시설사회: 시설화된 장소, 저항하는 몸들』, 와온, 2020.

29) 김병운, 『거의 사랑하는 거 말고』, 문학동네, 2025, 112쪽.

꾸러기 취급을 받던 삼촌이 하나 있었는데, 80년대 말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잘 사는가 싶었던 그 삼촌이 어느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것. 직계 가족이 쉬쉬해 물렸으나 나중에 알려지기를 사인은 에이즈로 인한 합병증³⁰⁾으로 사망했다는 오촌 외종숙 원진무가 사실 부산에서 살고 있으며 요양사들이 거부한 감염인들을 돌보다 현재는 요양병원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된다. 이민과 이주를 반복하면서도 조카와 형수의 손편지를 소중히 간직했던 삼촌이 오랫동안 죽은 사람 취급을 받았던 건 동성애자와 HIV/AIDS 감염인의 존재가 이른바 정상 가족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쳐내야 했던 불온한 가지였음을 말한다. 장희는 왜 죽은 엄마가 진무의 죽음을 알려줬는지 그 진의를 알 수 없다. 엄마 또한 잘못들은 소문을 옮겨 전했을 뿐인 것인지, 아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기 위해 은밀히 경고를 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중요한 건 직계 혈연 가족들이 진무를 버렸을 때, 그가 돌봄을 통해 새로운 친족 관계를 만들어나갔다는 사실이다. 장희에게 삼촌의 소식을 전해 준 이영서는 요양병원에서 진무가 동료 간병인으로서 돌보았던 환자로, 그 환자가 건강을 회복하여 자신을 돌봐준 간병인의 원가족을 찾아온 것이다. 진무는 오래도록 모두가 꺼린 HIV 감염 환자들을 간병하고, 저녁시간에는 해변에서 폭죽을 파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왔다. 긴 시간을 포함한 단어 '세월'이 어울린다는 아이러니한 작품의 제목은 물리적, 사회적 죽음과 가까운 것으로 인식되는 HIV/AIDS 감염인들이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삶을 상호 돌봄이 일어나는 일상의 긴 시간으로 바꾸어 내며 단절된 죽음의 서사를 갱신하고 친족의 의미를 혈연 너머의 것으로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돌봄 노동에 대한 양적, 질적 인식의 전환은 고령화 시대 국가의 인구정

30) 위의 책, 111쪽.

책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HIV/AIDS의 만성질환화와 더불어 2000년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며 민간요양원 설립에 대한 정부의 허가과 재정 지원이 쏟아져 요양산업이 크게 성장한 시기다. 서보경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폭발적인 증가와 그에 따른 과다 경쟁 속에서 환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병원 중의 하나가 HIV 감염인의 입원을 허용”하며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거나, 동성 파트너와의 관계를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환자들의 취약한 조건을 악용하여 입원 기간을 늘”³¹⁾렸음을 밝힌 바 있다. “한국 의료 체계는 HIV 감염을 근거로 한 배제를 정당화하기도 하지만, 병원이라는 공간 내부로 감염인이 편입되는 순간 이들의 생명을 긴 시간에 걸쳐 과학기술적 보조 장치들을 동원해 유지할 수 있다.”³²⁾ 즉 많은 요양시설들로부터 수용을 거부당한 HIV 감염인의 신체가 난립으로 과경쟁된 요양병원 운영진에게 소위 장사가 되는 시장 된 것이다.

이현석의 〈훈향〉은 HIV 보균자들이 지내고 있는 낙후한 어느 벽지의 요양병원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소설의 화자인 물리치료사 세연은 외딴 곳에 위치한 이 회복기요양병원에서 HIV 감염인과 그들을 돌보는 동료 간병인 남자와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갔다 HIV 사실이 밝혀져 전원이 거부 당하고 골든 타임을 놓쳐 중증 질환자가 된 환자 윤오의 케이스를 알게 된다. 좌천형 취업을 한 세연은 호전 기록이 있는 윤오 케이스에 대한 연구로 곤두박질 친 자신의 커리어를 역전할 기회를 얻고자 한다. 병원장으로부터 면허만 빌려준 의사들을 대신에 처방만 내려달라는 부탁을 받으며 환자가 꺼리지면 만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까지 언질받았을 정도로 요양병원의 기초 관리 체계는 부실하고 형편 없다. 그것은 요양병원 운영주체의 도덕성 결여나 무능뿐만 아니라 인력난을 겪는 시골 요양병원의 구조

31) 서보경, 앞의 책, 260-261쪽.

32) 위의 책, 212쪽.

적 낙후화의 문제이기도 하다. 소설 속에서 뒹뒹하게 제시된 바 시골 요양 병원은 외국인 노동자들 없이는 영업을 유지하는 일조차 어렵고, 직원들 간에 네 일 내 일이 구분되지 않아 서로의 업무를 동시다발적으로 상황에서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지방에서 벽지로, 벽지에서 오지로”³³⁾ 떠밀려 와 와상 상태로 경관 급식에 의존하는 환자들은 늘 진정제에 취해있다. 동료 환자들을 돌보는 것을 종교적 신념이자 삶의 소명으로 여기는 남자는 의료시스템과 환자들의 처지를 잘 알고 있다. “나아져서 뭐하나? 돌아갈 곳이 없는데.”³⁴⁾ “아픈 몸이 ‘민폐’이고 돌아갈 곳이 없다면 환자는 호전될 필요가 없다.”³⁵⁾ 요양병원이 소득을 올리기 위해 생명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무엇보다 자신의 업적을 위해 남자를 설득한 세연은 함께 윤오를 돌보며 경구섭취 단계까지 병증 호전을 이끌어내지만, 이내 윤오의 몸은 염증을 일으켜 상급병원으로 이송되고, 세연은 사건을 계기로 도망치듯 병원을 떠나온다.³⁶⁾

비슷한 시기에 출판된 김병운과 이현석의 소설 모두에서 중요한 인물들로 등장하는 ‘동료 간병인’의 존재는 한국의 HIV/AIDS 감염인 커뮤니티

33) 이현석, 〈훈향〉, 『문학과사회』 제138호, 문학과지성사, 2022, 212쪽.

34) 이현석, 위의 글, 219쪽.

35) 권미란, 「요양병원이 종착지가 된 에이즈 환자들」, 『시설사회: 시설화된 장소, 저항하는 몸들』, 와온, 2020, 176쪽.

36) 김건형은 난폭하게 몸을 움직이는 윤오를 제지하다 그의 혈흔이 세연의 몸에 닿는 장면을 두고 “추락한 인간성을 애도하기 위하여 퀴어/장애인/만성질환자와 만날 때, 그의 자율적이고 고유한 현존은 사라지고, 그 공백은 대리 치유자의 윤리적 책무와 헌신적 진정성으로 대체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건형, 「가족도 미래도 없이 친밀하게-돌봄의 생명정치와 난잡한 친밀성들」, 『크리티컬 포인트』, 문학동네, 2024, 238쪽. 주변인의 회고가 주를 이루는 HIV/AIDS 내러티브는 위에 언급한 최은영의 소설에서도 발견되는 특징인데, 이 작품들은 당사자의 목소리를 과잉 대리하는 도구화의 우려를 성찰하지만, 동시에 그러기 위하여 치유되거나 감염 이전의 상황을 끊임없이 경유하며 오염과 정화 혹은 무균의 메타포를 지속적으로 사용한다.

에 있어 중요한 인물군이다. ‘동료 간병’은 돌봄 서비스에 쉬이 접근할 수 없었던 HIV/AIDS 감염인들에 대한 교육지책이었다. 질병관리청이 민간 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한 이 동료 간병 서비스는 비교적 건강한 감염인이 간병교육을 받은 후 자가 돌봄이 어려운 다른 감염인의 생활을 도우며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제도다.³⁷⁾ 그러나 이러한 동료 간병인들은 왕왕 과노동과 노동 착취에 시달렸으며, 일자리를 위협하며 환자들을 감시하게 하거나 공모자가 될 것을 요구받았고 HIV 감염인 환자들에 대한 요양병원과 당국의 차별과 폭력을 증언하기도 했다.³⁸⁾

나는요, 형님을 만나고 나서 알게 됐어요./이영서씨는 말했다./나를 죽게 한 건 병이 아니고 사람이었다는 걸. 그러니 나를 살게 할 수 있는 것도 약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걸. 오늘 장희 군한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요. 삼촌은 절대로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았다고. 곁에 있는 사람을 하루라도 더 살고 싶게 만드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도 잘 지내고 있다고.³⁹⁾

두 소설에서 시설에 거주중인 HIV 보균자는 통상 눈에 띄는 ‘에이즈 환자’라기보다는 대부분 기력이 쇠한 노인 혹은 중증장애인으로 제시된다. 〈세월은 우리에게 어울려〉의 원진무는 경도 인지 장애 진단을 받고 휠체어를 이용해 움직이며 병원에 거주하고 하고 있지만, “언제나 소원은 노환

37) 이외에도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인 KNP+ 등의 인권단체에서는 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감염인들이 ‘서로 돌봄’ 사업을 운영하여 커뮤니티 내의 자조 돌봄을 실천하고 있다. 최정빈, 「HIV/AIDS 감염인 커뮤니티의 자조 돌봄 사례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5.

38) 최현숙, 〈HIV 감염인 당사자 간병인의 노동과 희망〉, 2014. 인권운동사랑방, 2017. 7.23., <https://www.sarangbang.or.kr/oreum/71649>. (접속일: 2026.5.9.)

39) 김병운, 앞의 책, 121-122쪽.

이었는데 끝내 이루어졌다며 멋쩍게 웃”⁴⁰⁾는 모습으로 조카 앞에 수십년 만에 얼굴을 비춘다. <훈향>에서 세연이 근무하는 요양병원의 환자들도 노환으로 병원에 있기는 마찬가지다. “우리 환자들이 누워 있는 이유가 거대세포바이러스폐렴이나 주폐포포자충폐렴 같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합병증이 아닌 당뇨, 뇌졸중, 치매처럼 흔하디 흔한 병 (...) 대부분이 노화라는, 누구도 피하지 못할 자연의 엄중한 섭리로 그곳에 누워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⁴¹⁾ HIV 감염인이든 아니든 많은 이들이 요양 병원에서 임종기를 보내고, 이는 2026년부터 시행된 노인과 장애인의 재택돌봄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돌봄 통합 지원법’ 등의 토대다. 즉 약물의 발달과 생명 보조 장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HIV 감염인 노인은 이런저런 숙환이 있는 노인이나 중증장애인과 복지 공학의 차원에서 점차 구별이 되지 않는다. HIV 감염인이 여타 다른 질병이 있는 노인, 장애인과 비슷한 지위를 획득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정의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포괄적 개념으로서 신체의 손상 그 자체만이 아니라 이에 따른 사회적 제약과 차별이 수반이 다시금 장애 정체성을 구성한다는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지향한다는 점에 입각해 볼 때, 만성질환화된 HIV/AIDS는 장애 상태에 부합하며 그것은 정치적 목소리를 제도에 기입하고, 변화해내는 힘을 가진다.⁴²⁾

40) 위의 책, 135쪽.

41) 이현석, 앞의 글, 205쪽.

42) 김은정은 장애를 개인의 손상의 정도만 아닌 사회적 차별의 결과로 보는 장애의 사회 모델을 정의를 논의하고, 장애인에게 강제적으로 권유되는 처치를 ‘치유 폭력’으로 정의하며 그러한 내러티브가 장애가 없는 과거/미래를 상정함으로써 현실의 몸들을 지우고 있음을 말한다. “장애인들은 잠재적 편익과 비용을 협상해 다양한 치유 방법의

소설의 참고문헌에서도 밝힌 바 〈훈향〉은 특히 2010년대 ‘수동연세요양병원 사태’로 일궈진 일련의 상황을 환기한다.⁴³⁾ 이 사태를 계기로 유관 시민사회가 이 사건 등을 장애인보호법위반 혐의를 의제화했고, 국가인권회는 HIV 감염인의 재활치료를 거부한 국립재활원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사례로 인정하였다.⁴⁴⁾ 차별금지법이 없는 상황에서 HIV 보균인들의 법적 권리를 장애인보호법으로 규명해야 했던 이 자구책은 새로운 인식론을 만들어 냈다. 실제 면역력이 크게 약화되거나 에이즈 발병 이후 HIV 감염 사실을 알게 되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처지를 제때 받지 못한 이들은 추후 중증 장애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치료제의 발달로 감염인들의 노령화가 지속되고 있다. HIV 감염인을 장애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시민사회의 논의에 기반하여 이훈재, 염형국, 장서연, 권미란 등은 HIV 감염인이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⁴⁵⁾ 2023년부터는 ‘HIV장애인정zew을위한전국연대체’가 출범하여 HIV장애등록거부에 대한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⁴⁶⁾ 이처럼

시도를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결정들은 대개 동일하게 실행 가능한 선택지들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다. 나는 타자를 소위 나아지게 해줄 것이라는 명목으로 타자가 지닌 차이를 지우려는 힘의 행사를 묘사하기 위해 ‘치유 폭력’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김은정, 『치유라는 이름의 폭력』, 후마니타스, 2022년, 38쪽.

43) 권미란, 〈에이즈환자는 ‘병원’도 없고 ‘국가’도 없다 - 요양병원에서 에이즈환자를 거부하는 이유〉, 2014. 인권운동사랑방, 2017.7.10., <https://www.sarangbang.or.kr/oreum/71635>. (접속일: 2026.5.9.)

44) 수동연세병원사태의 인권침해 문제를 계기로 이뤄진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 원탁토론회’에서 HIV 감염인의 장애정체성 구성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고, 그에 대한 의견과 찬반에 대한 토론의 내용 등이 다음의 기사에 스케치 되어 있다. 하금철, 〈에이즈 환자도 장애인 범주에 포함해야〉, 비마이너, 2014.5.9.,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6822>. (접속일: 2026.5.9.)

45) 이훈재·염형국·장서연·권미란, 「보건의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HIV 감염인의 건강권 : 최근의 수동연세요양병원 사건 및 요양병원들의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비판과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4. 451-470쪽.

HIV/AIDS를 장애 정체성으로 새롭게 구성해낸 역사는 HIV/AIDS의 중증질환화 시대의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장애가 반드시 선천적이거나 영구적이지 않으며, 장애를 훼손된 개인의 문제가 아닌 특정 신체를 배제하는 사회적 구성의 결과로 이해하는 장애학은 단발적 죽음대신 긴 삶을 말하기 시작한 HIV/AIDS 문학사에 새로운 인식론이 된다.

한국사회의 장례식은 가부장제의 재생산 순환의 한 대미를 장식하는 중요한 사회적 의례다. 가족구성원연구소의 김순남은 1980년대 미국의 에이즈 공황 이후의 HIV/AIDS 운동을 “애도를 정치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킨 대표적인 인권운동”⁴⁷⁾으로 규명하며 시신 인도부터 안치까지 혈연 직계가족이 전권을 위임하는 한국의 장사 법령 등이 특정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현대인들에게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보이며 가족구성권의 폭넓은 다양성을 주장한다.⁴⁸⁾

〈세월은 우리에게 어울려〉의 화자는 죽은 애인의 원가족의 후의와 배려를 기대하며 “당신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모범적이며 무해하므로 내 계도 자격이 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기꺼이 참고 견뎌”다가 원가족이 애인의 장례를 독점적으로 집전함으로써 싸늘하게 배제당했던 경험이 있다. “그토록 끊어내고자 했던 원가족의 품으로 P를 돌려보내야 했으며, 어째서 죽어도 거기는 싫다고 사정했던 그 선산에 P를 가두어야”⁴⁹⁾했던 화자

46) 〈HIV의 사회적장애인정을 위한 우리의 목소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23.12.5., https://www.kpil.org/board_activity/20231205/. (접속일: 2026.6.10.) 참조.

47) 김순남·김현경·나영정·이유나, 『퀴어한 장례식과 애도』, 산지니, 2025, 31쪽.

48) 가족구성권연구소는 호주제 폐지 이후 도입된 민법 등이 가족의 범위를 결혼제도와 그에 따른 가족신분제도에 기반한다는 것에 주목하며 “가족구성권이라는 의제가 단순히 가족제도에서 배제되고 차별받는 성소수자, 동거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의미의 ‘가족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애규범적인 가족중심 시민모델 자체를 해체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순남, 『가족을 구성할 권리』, 오월의 봄, 2022, 152쪽.

49) 김병운, 앞의 책, 131쪽.

의 지난한 후회는 장례식을 투쟁의 장으로 의제화한다.

〈훈향〉에서 짧게나마 재현되는 발인 장면은 시설 장기입원인의 고독한 마지막이지만, 동시에 작지만 귀여한 장례 의식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혈연들이 장례 비용 송금을 통해 고된 돌봄 노동의 마침표를 찍는 동안 환자를 돌보았던 남자는 화초를 꺾어 명정을 대신하고, 고개를 숙여 기도를 한 뒤 관을 트렁크로 밀어 넣는다.

누군가 병원을 떠나는 날이다./운구 버스 트렁크 문이 차양처럼 위로 열려 있다. 차양이 관 위에 각진 그림자를 드리운다. 버스 안에는 사람이 없다. 긴 시간 병원비만 이체해온 가족은 장례비를 보내는 것으로 외로운 여정에 중지부를 찍는다. 마지막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들을 두고 비정하다 말하는 이는 없다. 아무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세연도 몇 명인가 떠나보내고 서야 이해했다./남자는 담장말에서 화초를 살핀다. 오늘 그가 고른 꽃은 구절초 두 송이. 잘 구워진 계란프라이처럼 생긴 꽃을 꺾은 남자가 관 앞으로 돌아온다. 세연에게 한 송이를 건네며 남자는 바닷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때 어머니가 이 꽃을 조려 조청을 담갔다는 말을 덧붙인다. 남자의 고향은 수십년 전 방조제가 들어서면서 사라졌다. 더는 존재하지 않는 삶의 한 귀퉁이를 따 온 남자가 꺼끌꺼끌한 관 뚜껑 위에 한 송이를 올린다. 누군가 떠날때면 남자는 매번 그랬다. 매번 다른 꽃으로 이름 없는 관에 명정을 대신했다. 새로이 이름을 알게된 꽃들만큼 사람들은 떠났고 세연은 그 이름들을 돌에 새기듯 기억에 새겼다. 며칠이 지나면 다른 사람이 빈자리를 채울 것이다. 곧 있어 최종 기착지에 정박할 이가 풍기될 훈향, 특 쏘는 소독약 냄새가 촉각만 남긴 채 군불 내음처럼 묵직하게 감각될 그 향기가 벌써부터 느껴지는 듯하다. 숨을 깊이 들이마신 세연이 관 앞에 바투 서서서 꽃을 누인다./“이 사람아. 각을 딱딱 맞춰야지.”/남자가 꽃대를 툭툭 치면서 투덜댄다. 제 꽃과 평행하도록 꽃대를 매만진 남자가 눈을 감는다. 고개를 숙이고 읊조린다. ………이 시간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로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

고 저희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권면을 더하여주시옵소서. 남자가 관을 트렁크 안으로 밀어 넣는다. 차양이 걷힌 땅 위로 늦여름의 햇살이 쏟아진다. 메마른 땅이 하얗게 빛난다. 눈살을 찌푸린 세연이 고개를 돌린다. 버스가 흙먼지를 날리며 병원 건물을 돌아 나간다.⁵⁰⁾

찾아오는 이 없이 간소히 치러지는 장례 절차는 그의 일련의 동작들을 통해 잠시나마 존엄의 무게를 얻고, 그 훈향은 코로나19의 후유증으로 인한 이취증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화자의 후각을 통해 바이러스를 얻은 몸이 마주하는 끊임없는 새로운 현실적 자각을 상징하며 이는 HIV/AIDS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는 문학적 정동 장치다.

HIV 감염 당사자이자, 의료 산업의 말단 노동자이자, 국가 폭력의 증언자인 이 ‘동료간병인’은 두 소설 속에서 모두 새로운 친족 구성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네트워크 항으로 제시된다. 이들은 혈연 가족이 부탁한 가족을 보살피는 돌봄책임자이자, 혈연 가족이 저버린 사람들의 유일한 가족이기도 하고, 가족이 오지 않은 장례식에 참여하는 상주이자 조문객이기도 하다. 죽었다는 소문과 달리 살아 있는 ‘좀비’(원진무)이거나 오갈데 없어 포박된 채 갇혀 있는 ‘수인’(임운오)에게 언어와 몸짓을 입히고 역사를 부여하는 이들이 바로 이 인물들이다. 환자가 내는 신음 소리를 적절히 번역하고, 발작적 움직임의 미묘한 의도를 알아차려 필요한 처치를 능숙하게 해내고, 더러는 환자의 과거와 현재에 새로운 인연들을 엮어내는 이들은 환자들의 가장 가까운 물리적, 심리적 생활의 동반자다. 다변화되는 사회에서 이제 누구를 가족으로, 친족으로 부를 것인지 이 소설들은 묻고 있다.

50) 이현석, 앞의 글, 220-221쪽.

4. 안전하지 않은 섹스를 할 권리와 설레는 감염

카테일 치료법의 발달로 인해 에이즈가 만성질환화되어가던 시기에 나온 더글러스 크립프의 텍스트들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HIV/AIDS 운동에 시사점을 제기한다. 즉 예방약도 있고, 그것에 대한 지식도 있고,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는 특권적인 상황에서 HIV에 감염된 이들에게 던져진 도덕적 비난에 대항해 새로운 세대의 윤리를 제창한 것이다. 그는 에이즈 위기 이후 제시된 ‘안전한 섹스’ 담론, 즉 책임감있고 안전한 섹스를 안내하는 최초의 책자인 <감염병 시대에 섹스하는 법>을 이어받아 <감염병의 시대에 우리의 문란한 사랑을 계속하는 법>이라는 글을 통해 에이즈 위기로 수축되고 보수화된 성정치의 급진성을 재차 발명하고자 했다. “우리의 문란이야말로 우리를 구할 것이다.”⁵¹⁾ 난잡함은 특히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금지 조항’(이하 19조), 즉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감염인을 형사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이 있는 한국 사회에서 더욱 유효한 가치다.⁵²⁾

하위문화로서 크루징을 그리는 유성원의 작품들은 ‘안전한 섹스’와 ‘성중독’ 담론을 전복하는 전위성을 보인다.⁵³⁾ <토요일 외로움 없는 삼십대 모

51) 더글러스 크립프, 『애도와 투쟁』, 현실문화, 2021. 96쪽.

52) 연구모임 POP는 19조를 근거로 합정수사를 한 경찰에 의해 적발된 HIV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문제를 제기하며 약물을 사용하여 섹스를 하는 캠퍩스 당사자들을 형사적 범죄자와 의학적 중독자라고 규제하는 전제들을 다층적으로 돌아볼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구모임 POP, 『캠퍩스』, 워크룸, 2022.

53) 호세 무뇨즈는 크루징 문화에서 관계 맺기의 새로운 방식을 탐구하는 퀴어 정치학의 가능성을 보았다. 무뇨즈는 크립프의 글이 묘사했던 게이 공간이 비록 줄거나 수정되었으나 결코 사라진 적이 없음을 밝히며 에이즈 위기 이후 퍼블릭 섹스 공간을 유토피아적 관념으로부터 해체하고자 한 버사니를 비판한다. “반섹스적이고 동성애 혐오적인 경찰력 행사에도 불구하고, 많은 게이 남성들은 크립프가 열거한 실천들을, 다만 더 안전한 섹스 시대 속에서 번역된 형태로 유지했다. 협상된 위험과 다양한 전술적 결정

임)의 화자는 안정적인 성적 자원을 확보하지 못해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는 게이들이 성적 동의 과정의 동등한 행위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한다. 못생김, 늙음, 가난의 지표들 속에서 화자는 차별 당하고, 차별하기를 반복한다. 특히 HIV 감염인과의 만남은 그에게 왕성한 호기심과 성욕을 돋군다. “나에게 자신감이 없어서 원하는 게 있으면 다 들어주는 편이에요. 거부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요.”⁵⁴⁾ ‘저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게 요구하는 걸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것도 걸렸을 거예요, 하는 고백을 듣자마자 그와 자고 싶어지고 뭔가를 확인하고 싶었다.”⁵⁵⁾ 감염인에 대해 느끼는 화자의 지속적인 충동적 관심과 애정은 그 자신의 자기 혐오, 죽음 충동, 삶에 대한 의지와 강하게 연동되어 있다. 그는 감염인으로 사는 법을 알고 싶기도 하고, 그냥 죽고 싶기도 하다.

유성원의 두 번째 책 〈성원씨는 어디로 가세요?〉의 화자는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접촉을 삼가야 하는 팬데믹의 시대, 무수한 장소들을 오가며 익명의 사람들과 셀 수 없는 방식의 성적 접촉을 한다. 게이 썸방과 디비디방, 대실로 꽉찬 모텔과 공원의 풀밭, 부장님의 오피스텔과 옆방에 아이들이 자고 있는 유부남의 침실에서, 다양한 폭력들을 친밀성의 형식으로 번역하며 꾸준하게 성을 실천한다. MSM으로서 화자의 파트너는 외국인, 블루칼라, 노인 등이 포함된 모든 사람이지만, 그 정체성의 표지들이 중요한

들은 이러한 성적 충동들을 다소 수정했을 뿐, 완전히 제거하지는 않았다. 크립프가 묘사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지만, 그 기억과 유령들, 그리고 세대 간에 유토피아적 비전을 전달하는 의례화된 수행들은 여전히 우리의 정치적, 성적 삶을 추동한다. 그것은 오늘날 실제로 존재하는 우리의 게이 생활 세계의 가능성을 먹여살린다.” José Esteban Muñoz, *Cruising Utopia: The Then and There of Queer Futurity*,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9, 34쪽. 유성원의 소설에서 크루징은 결코 반복될 수 없고 온전히 파악될 수 없지만, 화자의 존재 양식을 탐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54) 유성원, 『토요일 외로움 없는 삼십대 모임』, 난다, 2025, 31쪽.

55) 위의 책, 38쪽.

것은 아니며 오히려 소설의 절반 이상을 채우는 건 각각의 만남을 통해 느껴지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가고, 이해하고, 개발하고 싶다는 열망이 섞인 자문의 연속들이다. “어떻게 하면 사랑 없이도 건강하지 않아도 살아 있기를 선택할 수 있나요?”⁵⁶⁾

이 소설은 섹스에 중독된 전형적인 나쁜 게이 시민을 재현하는 듯 하지만, 화자는 본질적으로 중독 자체를 자제하거나 치유할 수 없고, 실은 중독과 그것에 대한 몰입 자체가 게이로서의 삶의 윤리적 형식이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 한편 크루징을 통해 비로소 가능하게 된 금기는 더 이상의 쾌락을 보장해주지 못하는데, 중독이란 달성될수록 더 높은 허들을 만들어내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해 보았기에 반복하여 할 수 있는 것들은 더 이상 새로운 삶의 형식을 구성하는 쾌락의 입구로 기능하지 못하고, 소설은 이러한 반복을 통해 자기 수양 형식으로 나아간다. “내가 하던 노콘 항문섹스, 돌림 등등은 평범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로서 자극도 없고 굳이 그래야 할 이유조차 없는, 그래서 콘돔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고집은 쾌감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지 못한다는 깨달음에 이르게까지 했다. (……) 그렇다면 다음은 어디로 가야 하죠?”⁵⁷⁾

이 짧은 소설에서 크루징의 반복이 느슨해지는 때는 건강검진을 받은 후, 식당에서 출입을 거부 당하는 상상을 하고, 상사로부터 위험하니 자전거를 타지 말라는 소리 듣게 되는 때다. 화자는 전화로 HIV 익명 검사를 예약한 후 한 진료실에 들어간다.

마지막 검사가 작년 8월이네요. 이번은 의심되는 성관계가 있으셨던 거예요?

56) 유성원, 『성원씨는 어디로 가세요?』, 난다, 2025, 20쪽.

57) 위의 책, 129-130쪽.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상 소견이 나와서요.
검진에 HIV 검사가 포함돼 있었던 거예요?
아뇨. HIV는 아니고 면역혈청검사에서 이상이 나왔어요. 아마 오늘 양성 나올 것 같아요.
그는 설문지를 살펴본다.
양성이 나오면 어떨 거 같아요? 설렌다, 두렵다, 불안하다.
설렌다? 설레요.
설렌다?
올 것이 왔구나 하는 느낌. 비감염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많이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여기부터는 안 가본 영역이니까. 그동안 계획해왔던 걸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설레요.
어떤 계획요?
HIV 양성이 되면 전파매개행위금지조항 소송을 하고 싶었거든요. 미검출 상태에서 보호 조치를 사용하지 않은 성관계를 하고 그런 저를 19조 위반으로 고소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다른 사람 보고 하라고 할 순 없으니까.
그런 게 혹시 꿈이었나요?
아뇨. 제 삶의 작은 과제 중 하나.
그럼 더 큰 계획이 있어요?
살아 있기? 인간 세상에서?⁵⁸⁾

이 설렘은 HIV/AIDS 운동의 활동가로서 가지게 된 사회적 소명이자, 더 큰 금기를 원하는 중독자에게 제시된 또 하나의 기준점으로, 둘은 구분되지 않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난잡함은 ‘설렘’이라는 미결정 상태의 긴장을 통해 정치적 메시지로 전환된다. 소설은 음성을 바라면서도, 양성을 기대하는 화자가 오라퀵 스틱(HIV 감염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자가 키트) 결과를 바라보는 장면에서 끝이 난다. 건강이 내용 없는 허위적 가상이라거

58) 위의 책, 180-181쪽.

나 퀴어 친밀성의 관계가 이에 대한 인위적 대책이라는 뜻이 것이 아니다. 화자가 느끼는 이 '설렘'은 HIV/AIDS 운동의 발전과 제약의 발달에 대한 기대 속에서만 가능하다. 다만 HIV/AIDS에 대한 관념을 구성하는 대립관계들이 해소된다면, '더 많은 삶'이 가능할 것이고, 운동가로서, 작가로서, 인간으로서 〈성원 씨는 어디로 가세요?〉의 화자는 그 '더 많은 삶'에 지대한 관심을 보인다. 이 왕성한 호기심은 퀴어적인 것이자 본위의 예술적인 것이다.

5. 나가며

본고는 신약 개발로 인해 만성질환화된 HIV/AIDS가 2010년대 중후반 이후 문학 작품 내에서 다양하게 다뤄지며 어떤 시대적 변화와 재현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먼저 HIV/AIDS에 대한 기존의 문학 작품의 경향과 동시대의 이론적 비평적 확장을 살펴 본 후 본격적으로 박상영, 김병운, 이현석, 유성원 등의 소설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제약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긴 삶이 가능해진 시기에는 HIV/AIDS를 충격적 소재로 사용하는 것을 너머 노동자로서의 근로 조건의 문제, 노령화되어 가는 감염인에 대한 돌봄 노동과 시설의 문제를 다룬다. 이러한 발전은 장애학을 새로운 퀴어 인식론을 사유하게 하였고, 접촉 자체가 범죄화되었던 팬데믹의 시간을 통과하며 수축될 위험이 있는 퀴어정치학의 새로운 과제, 즉 난잡함의 정치화를 제시하였다.

문란한 성생활로 에이즈와 살인이 창궐하는 사회를 그린 범죄 오락 소설에서부터 HIV 감염을 적극적인 정치적 자원으로 삼아 사회 운동을 하겠

다는 오토 픽션까지, 제약 기술의 발전과 개인의 환경 조건에 따라 HIV/AIDS 문학은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되어 왔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19조의 폐지가 요원한 상황에서도 제도적 제약만을 그 자신의 한계 조건으로 설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동시대 HIV/AIDS 문학은 다양한 시적, 정치적 감수성을 개발해왔다.

퀴어 운동의 성과와 페미니즘 대중화 시대를 배경으로, 팬데믹의 시대를 거치며 형성된 HIV/AIDS에 대한 문학과 비평은 추적과 발견, 가해와 피해, 오염과 건강, 퀴어와 비퀴어 등의 이분법을 해체하며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갖는 것으로서의 HIV/AIDS를 말하고, 이는 '만성질환'라는 존재의 요건이 특정 인구군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 아프고 늙어가는 모두의 삶과 그 삶의 양식에 대한 총체적인 물음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건강하게 무병장수할 권리가 '좋은 삶'의 예비조건이 아니라면, 이제 삶이란 것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HIV/AIDS 서사는 이제 더 큰 물음 앞에서 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김경민, 『겨울 허수아비도 사는 일에는 연습이 필요하다』, 성림, 1993.
- 김병운, 『거의 사랑하는 거 말고』, 문학동네, 2025.
- 김성중, 『불타는 여인』, 남도출판사, 1990. (상·하 총2권)
- 김수진, 『하얀 노을』, 미래문화사, 2004.
- 박상영, 『대도시의 사랑법』, 창비, 2019.
- 박선우, 『햇빛 기다리기』, 문학동네, 2022.
- 유성원, 『성원씨는 어디로 가세요?』, 난다, 2025.
- _____, 『토요일 외로움 없는 삼십대 모임』, 난다, 2025.
- 이현석, 〈훈향〉, 『문학과사회』 통권 제138호, 문학과지성사, 2022.
- 최은영, 〈상우〉, 『모로그 디오라마 - 2019년 제64회 현대문학상 수상소설집』, 현대문학, 2018.

2. 논문과 단행본

- 권미란, 「요양병원이 종착지가 된 에이즈 환자들」, 『시설사회: 시설화된 장소, 저항하는 몸들』, 와온, 2020.
- 김건형, 「가족도 미래도 없이 친밀하게-돌봄의 생명정치와 난잡한 친밀성들」, 『크리티컬 포인트』, 문학동네, 2024.
- 김대현, 『세상과 은둔 사이』, 오월의 봄, 2021.
- 김순남, 『가족을 구성할 권리』, 오월의봄, 2022.
- 김순남·김현경·나영정·이유나, 『귀여한 장례식과 애도』, 산지니, 2025.
- 김은정, 『치유라는 이름의 폭력』, 후마니타스, 2022.
- 김정숙, 「에이즈 감염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사는 이유」, 『월간 복지동향』 제178호,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13, 43-47쪽.
- 나영정·김순남·김호수·변미혜·오진방·강진경·김현철·김윤영·전근배·고은지·김연주·권미란·노다혜·김은정·정다운·조현수·김지혜·여름·한날·진은선·조미

- 경, 『시설사회: 시설화된 장소, 저항하는 몸들』, 와온, 2020.
- 남웅, 「에이즈 표현하기, 에이즈 표현을 위한 주춧돌 놓기」, 『감염병과 인문학』, 강, 2014.
- 문아영, 「국가를 위생화하기?: HIV/AIDS 감염인의 재현과 그에 따른 낙인화」, 『현대 영화연구』 제57호, 한양대학교 현대영화연구소, 2026, 87-121쪽.
- 박상영,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문학동네, 2018.
- 박차민정, 「AIDS 패닉 혹은 괴담의 정치」, 『말과활』 제12권, 일곱번재숲, 2016, 35-48쪽.
- 박형서, 「한국 문학에 나타난 에이즈」, 『감염병과 인문학』, 강, 2014.
- 서보경, 『휘말린 날들』, 반비, 2023.
- 연구모임 POP, 『캠섹스』, 워크룸, 2022.
- 이훈재·염형국·장서연·권미란, 「보건의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HIV 감염인의 건강 권: 최근의 수동연세요양병원 사건 및 요양병원들의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비판과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4, 451-470쪽.
- 전원근, 「1980년대 『선데이서울』에 나타난 동성애 담론과 남성 동성애자들의 경험」, 『젠더와 문화』 제8권 2호,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2015, 139-170쪽.
- 정성조, 「한국 군대 내 동성애 '문제'의 '탄생': '군형법 상 추행죄'의 시차에 대한 역사적 접근」,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2018, 449-467쪽.
- 조병희, 『섹슈얼리티와 위험 연구』, 나남, 2008.
- 최정빈, 「HIV/AIDS 감염인 커뮤니티의 자조 돌봄 사례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25.
- 더글러스 크립프, 『애도와 투쟁』, 현실문화, 2021.
- 리사 두건, 『평등의 몰락』, 한우리·홍보람 역, 현실문화, 2017.
- 미셸 바렛·메리 맥킨토시, 『반사회적 가족』, 김혜경·배은경 역, 나뭇잎, 2019.
- 수잔 손택, 『은유로서의 질병』, 이재원 역, 이후, 2002.
- José Esteban Muñoz, *Cruising Utopia: The Then and There of Queer Futurity*,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9.

3. 기타자료

- 권미란, 〈에이즈환자는 ‘병원’도 없고 ‘국가’도 없다 - 요양병원에서 에이즈환자를 거부하는 이유〉, 인권운동사랑방, 2017.7.10., <https://www.sarangbang.or.kr/oreum/71635>. (접속일: 2026.5.9.)
- 송경호, 〈CJ·티빙, 동성애 미화 〈대도시의 사랑법〉 방영 철회해야〉, 『크리스천투데이』, 2024.10.14.,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64358>. (접속일: 2026.6.10.)
- 최현숙, 〈HIV 감염인 당사자 간병인의 노동과 희망〉, 인권운동사랑방, 2017.7.23., <https://www.sarangbang.or.kr/oreum/71649>. (접속일: 2026.5.9.)
- 하금철, 〈에이즈 환자도 장애인 범주에 포함해야〉, 비마이너, 2014.5.9.,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6822>. (접속일: 2026.5.9.)
- 〈HIV의 사회적장애인정을 위한 우리의 목소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23.12.5., https://www.kpil.org/board_activity/20231205/. (접속일: 2026.6.10.)
- HIV/AIDS 정보사이트: 아카이브, <https://hivaidinfo.org>. (접속일: 2026.5.9.)

Abstract

A Study on Changes in Literary Narratives after the Chronicization of HIV/AIDS in Korean Literature

Oh, Eun-Gyo(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examines the narrative transformations in contemporary Korean literature brought about by the chronicization of HIV/AIDS. As HIV/AIDS has gradually lost its former association with inevitable death, literary representations of the disease have shifted away from focusing solely on the psychological suffering of infected individuals. Instead, they increasingly portray the diverse life experiences of people living with HIV across educational settings, the military, workplaces, hospitals, nursing homes, and funerary contexts. In particular, these narratives raise broader social questions concerning care labor and reflect the realities of an aging Korean society.

Since the mid-to-late 2010s, many contemporary Korean writers have begun to explore new representations of people living with HIV. This shift has emerged alongside advances in medical technology and changing social perceptions. In these novels, normative structures surrounding labor, romance, and family are critically interrogated. Through such narratives, issues including the labor rights of HIV-positive individuals,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long-term care industry, and institutional problems within care facilities become increasingly visible, often in connection with the epistemological framework of disability studies.

From both literary and social perspectives, this study seeks to deepen poetic and political engagement with HIV/AIDS while critically examining the development of contemporary narratives shaped by the rise of feminism and the advancement of queer politics in Korea.

(Keywords: HIV/AIDS, Korean Literature, Disability Studies, Care Labor)

456 대중서사연구 제32권 2호

논문투고일 : 2026년 5월 10일

심사완료일 : 2026년 6월 14일

수정완료일 : 2026년 6월 17일

게재확정일 : 2026년 6월 18일